

**환경뉴스**

**정읍농업센터, 오디 등베리류  
철저한병해충 관리 당부 나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복분자와 오디 등 베리류의 철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복분자와 오디 수확 후 수세가 약해져 있어 내년 농사를 위해서 세력이 약해진 포장은 웃거름을 주고 장기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심한 물 관리가 필요하고 집중강우 시 침수우려지역 배수구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복분자는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병해충과 잡초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수확 전보다 후에 탄저병과 점무늬병, 줄기뿌리혹병, 줄기마름병 등의 발생이 늘어나므로 수확 후 병해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복분자 고사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점무늬병과 탄저병 등 예방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 요즘 뽕나무에 돌발해충인 환불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불나방이 발생할 경우 뽕잎을 전부 폭식하여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방제활동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블루베리 수확이 마무리에 달하는 이 시기에는 수확이 마무리 된 포장의 방조망을 제거하고, 이날 상순까지 추비(追肥)해야 원활하게 월동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축제는 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흰색 상사화꽃인 위도상사화 군락지를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기념하면서 무인민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흰색 위도상사화 보러 오세요”**

**‘고슴도치섬 달빛아래 밤새걷기 축제’ 19~20일 부안군 위도에서 개최**

부안 고슴도치 섬 위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흰색 상사화꽃 '위도상사화'와 달빛을 보면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밤새 걸을 수 있는 축제가 오는 19일~20일 위도면 일원한 여름 밤에 열린다.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꽃인 위도상사화가 만발한 자연에서 밤새 걸을 수 있는 '고슴도치섬 달빛아래 밤새 걷기 축제'는 위도면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흰색 상사화꽃인 위도상사화 군락지를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기념하면서 부안민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흰 눈이 내린 것처럼 온통 하얀 세상을 연출하는 위도상사화 군락지는 위도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해바다 파도소리와 달빛이 비친 바다풍경이 어우러져 황홀경을 자아낸다.

부안군은 달빛을 맞으며 아름다운

고슴도치 섬 위도에서 오복을 누리 고 오감을 느끼는 힐링관광을 통해 힐링아일랜드 'The 위도'를 만들고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 섬' 중 '늘섬'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찾아와 즐기는 콘셉트를 정립하고 위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연중 마케팅 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오후 5시 위도면 파장금항에서 열리는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10시까지 달빛힐링코스(8.7km 150분 소요), 달빛민복코스(8.8km 150분 소요), 달빛축복코스(10.8km 180분 소요), 위도달빛코스(9.2km 160분 소요) 등 4개 코스로 진행된다.

달빛힐링코스는 파장금항을 출발해 시름, 개들님, 치도, 진리, 벌금 정금을 거쳐 위도해수욕장에 도착하는 코스이며 달빛민복코스는 벌금을 시작으로 진리, 위령탑, 시름, 개들님, 치도, 벌금, 위도해수욕장

순이다.

위도 해안도로는 16.8km로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시원한 해변과 함께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고 작년 축제에는 300여 명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위도해수욕장 일원에서는 200여 명이 참여하는 '달빛 캠핑'과 축제참가자들의 갯벌 걷기 체험인 '갯벌 걷자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축제 이틀날 갯벌체험과 함께 후릿그물체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사화 중 꽃이 흰색인 위도상사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안 위도에서만 볼 수 있다"며 "위도상사화 필 무렵 위도를 찾은 관광객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달빛보고 밤새걷기 축제를 통해 오복을 가득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소방서 · 한국가스공사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개최**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3일 2층 회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취약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가스공사 전북지부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한데 따른 것이다.

기증식에는 김일선 정읍소방서장과 신옥철 분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증서 전달을 마친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일선 정읍소방서장은 "화재예방에 앞장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한 한국가스공사 전북지부 관계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증품을 신속히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여 화재피해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평선축제, 젊은층 겨냥한 프로그램 준비**

**김제시, 퓨전마당놀이 등**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오는 9월 29일부터 5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청소년 등 젊은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층 젊어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차에 펼쳐진다.

김제시는 젊은층을 공략할 퓨전 마당놀이 「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신관사포전」이 허당사또, 신임포졸, 꽃가지, 서울가생 등 개성있는 조선 캐릭터들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참여

형 프로그램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는 전국대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의 특화프로그램(인공암벽타기, 오리피리, 포로켓 제작, 등)을 통합 운영하여 축제기간 중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영화감독을 꿈꾸는 청소년 영재들을 위한 '2016 지평선 청소년영화제가 축제기간에 김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다.

9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

연과 초창작 상영의 순으로 진행되며 작품 주제는 농업 및 생명, 청소년 관심사를 소재로 하여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 구분이 없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지난 18년간 전통농경문화의 진수를 함축하여 젊은 층을 비롯한 전 세대의 남녀노소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이제는 5년 연속 대표작제로 매조기를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 태인면, 피향정 문화축제  
앞두고 주변 환경 정비활동**

오는 13일 열린 제19회 피향정 문화축제를 앞두고 태인면 직원들이 축제 주무대인 피향정을 비롯한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들 직원들은 지난 주말 대각교와 마을 도로변 환경정비와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 환경 정비도 함께 실시했다.

면 관계자는 "선민문화의 고장인 태인에서 열리는 피향정 문화축제를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행사장을 조성,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편안한 분위기에 즐길 수 있도록 합은 물론 내내외적으로 아름답고 밝은 태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한편 피향정 문화축제는 '호남제일정(湖海第一亭)'으로 꼽히는 피향정(披香亭)·보물 289호에서 은은한 연향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지평선학당, 한국사 특강 실시**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이건설 이하 재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평선학당 한국사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지평선학당에서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루 4시간 10회에 걸쳐 특강이 이루어지며, 참여 신청은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평선학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출제문항은 총 20문제,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도입이 되며, 점수표기 방식은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40점은 2등급과 같이 분류된다.

올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수는 한국사 반영방식을 보면, 수시모집에

서 84개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162개 대학 해당 영역 성적을 반영예정이다.

또한 수시에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 29개교가 한국사 성적을 최저 학력기준으로 활용하며, 기존 적용 방법은 국어영역수학탐구한국사 등 5개 영역 등급을 합쳐 최저기준을 정하거나 한국사만 따로 최저등급을 두고 정한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55개 대학은 응시여부를 확인한다.

이건설 이사장은 "2017년도 대학입시에서 한국사 중요성이 대폭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평선학당에서 특강과목을 개설하였으니, 시 관내 거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강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한국사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절도 예방 순찰형 걸개 부착**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지구대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택 밀집지역과 상가를 중심으로 찾아오는 문안순찰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난 예방과 주의할 점을 홍보하는 등 침입 절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간엔 주민이 출타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문 문고리에 순찰형 걸개를 부착하며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는 표시를 남김으로써 절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순찰형 걸개는 경찰이 구석구석 순찰로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지구대로 연락을 부탁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문이나 문안집에 걸 수 있도록 카드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노력**

김제시는 4일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황배면 안진개발국장 주재로 실무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 실무자들이 각과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처리에 대하여 회신을 앞당겨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복합민원 발생시 3~4개과 해당 실무자들의 협업 출장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조금 더 빠른 민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일환인 전기사업허가의 협의중복을 개선하여 허가기간을 30

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황배면 안진개발국장은 지난 4월 '1/4분기 1차 민원처리기간 단축 간담회'에 이어 2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간과 관계없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을 각부서 주요 민원처리 실무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간담회 실무관계자는 "민원실무자들의 적극적이고 부서관 협조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부안군은 노랑상사화길과 격포 달이봉전망대에 소원패 달기 장소를 조성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안군, 변산마실길 소원패 달기 장소 조성**

부안군이 전국 도보여행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변산마실길에 소원패 달기(흔적남기기) 장소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변산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붉노랑상사화길과 격포 달이봉전망대에 소원패 달기 장소를 조성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부안군은 해안버타의 특성을 살려 자연소재인 가리비잡질을 소원패로 활용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관광객들은 소원패에 가족의 건강과 사랑의 징표, 아름다운 변산마실길에서 느낀 점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있어 이색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옛 군부대 초소 및 격포 달이봉전망대 연리지를 활용한 오복단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당과 연계한 지질명소 등의 스토리텔링 화를 통해 변산마실길 탐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급업체(6개 업체)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업무협약을 가졌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급업체(6개 업체)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정읍교육지원청은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장려에 나선다.

또 공급업체는 정읍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친환경 농업인연합회(재배능기)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지역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데 있어 상호 협의와 은 물론 신뢰와 조성을 위해 협약을 가졌다"며 "정읍산 우수 친환경 식재료 품목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생산농가, 공급업체, 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교월동, 31일까지 뽕짚환원 지원사업 신청접수**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환)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6년 지역중진 뽕짚환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월동 담당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

터에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최소면적 1,000㎡이상이면 신청면적이 제한은 없으나 신청량에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지급면적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